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 주차 (롬 1:8-17)
(2017년 1월 15일 - 2017년 1월 21일)
(제 5 권 3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5 권-제 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1 월 1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하는가? (주일)

오늘의 본문 (롬1:8)

사실 무엇보다 먼저 (Πρῶτον μὲν)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εὐχαριστῶ τῷ θεῷ μο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여러분들의 모두에 대하여 (περὶ πάντων ὑμῶν)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ὅτι ἡ πίστις ὑμῶν καταγγέλλεται ἐν ὅλῳ τῷ κόσμῳ.)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첫인사를 마무리한 바울은 본격적인 복음의 논증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 있다. 그의 사적 소회의 첫 부분은 ‘감사’다. ‘감사’(感謝)란 고맙게 생각하는 것,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는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감사라는 단어가 가진 통상적인 의미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 이상의 어떤 존재를 지칭하고 있다. 좀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 초대 교회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감사’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가 받은 혜택을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했다. 그들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되갚는 일종의 감사 행위다. 그렇기에 타인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감사란 바로 이런 경우에 쓰이는 단어다. 어떤 행위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그저 감사하다는 말 밖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Craig L. Blomberg, *Jesus and the Gospel* (2009), pp 341-342 참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이야기는 감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읽어보자.

“¹¹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¹²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¹³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¹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¹⁵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¹⁶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¹⁷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¹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¹⁹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지시를 들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 문둥병으로부터 온전해졌는지 판단을 받으라 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다. 한 번 문둥병(전염성 피부병) 판정을 받아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사람이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공식적인 판결을 거쳐야 했다. 열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가던 중 자신들의 피부가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 명 모두 하나도 예외없이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유대인 아홉 명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대로 행한 것이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하며 엎드렸다. 율법대로 제사장을 찾아간 아홉 명의 유대인들과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길을 되돌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매우 이기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겨졌다. 당시 자신이 받은 은혜는 예물을 드리든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빈손으로 되돌아와 예수님께 말로만 감사의 표시를 한 셈이다. 사실 그의 행동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시인하는 행위에 다름없었다.

감사는 타인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다. 많은 문둥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이 그랬으며,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나 앞 못보던 청년이 그러했으며, 말못하던 병어리,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열두 해를 혈우병으로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여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등등...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감사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염치없음’이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돼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떠한 것으로도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없을 때 나오는 반응이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감사는 단순한 사례의 표시가 아니다. 자신이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다. 감사는 자신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라는 단어에는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나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1:9-10)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μάρτυς γάρ μου ἐστὶν ὁ θεός,
그분은(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입니다 (ὃ λατρεύω)
나의 영으로 (ἐν τῷ πνεύματί μου)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ἐν τῷ εὐαγγελίῳ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언급하는 사실을 (ὡς ἀδιολείπτως μνησθεὶς ὑμῶν ποιῶμαι)
내가 기도할 때 항상 (πάντοτε ἐπὶ τῶν προσευχῶν μου)
간구하면서 (δεόμενος)
가능하면 지금 당장 언제라도 (εἴ πως ἤδη ποτὲ)
나에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εὐδοθήσομαι)
하나님의 뜻 안에서 (ἐν τῷ θελήματι τοῦ θεοῦ)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것이 (εἰθεῖν πρὸς ὑμᾶς)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기도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자신의 기도가 간절하고 확신에 차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다!’라는 말이 단순히 자신의 말이 한치도 거짓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은 않다. 그보다는 바울은 언제나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도할 때에도 늘 자신의 내면에서 응답하시는 그분께 매달렸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증거자라는 말은 자신의 기도 내용 또한 개인적인 차원의 간절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천명했다. 하나님은 인간이 증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종적 위치에 계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는 것’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바울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는 말이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개척자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그는 로마 교회와 어떠한 연관도 없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했다. 그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은 모두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과거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그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지금의 스페인)에 전도를 계획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다(롬 15:19 참조).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탈리아와 근접한 지역이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헬라 지역에서 더 이상 교회를 추가로 개척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를 그의 다음 복음전도지로 생각한 것이다(롬 15:23 참조). 그가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단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을 자랑했던 도시인 로마를 관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곳을 방문해서 자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온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끝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성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상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섬기는 분이라 소개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영은 단순한 신비주의에 불과한 것이며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낱 인간의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준다. 유대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일삼다가 종교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힌 중죄인이었다. 이방인들의 시각으로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다 사형을 당한 일개 유대 청년일 뿐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고전 1:23). 그런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예수가 우리 구주임을 아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핵심이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소식이다. 또한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들린다. 게다가 재연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불가사의한 사건이다.

당신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우리 나라도 기독교의 전파 역사가 100년을 넘어 선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 대대손손 기독교를 가정 종교로 여기고 당연히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흔히들 모태 신앙이라는 분들이 그렇다. 물론 모태 신앙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런데 바로 그게 도리어 문제가 될 때가 많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자신의 죄 문제, 실존에 관해 별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은 쉽게 무너져 내린다. 사실 엄밀히 말해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신앙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어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믿은 신앙이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아니다. 믿음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룩한 의식이다. 그렇기에 부모의 믿음이 아닌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자신이 믿음 안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나요?

영적 선물은 무엇인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1:11-12)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ἐπιποθῶ γὰρ ἰδεῖν ὑμᾶς,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어 (ἵνα τι μεταδῶ χάρισμα ὑμῖν πνευματικόν)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εἰς τὸ στηροχθῆναι ὑμᾶς)
그것은 서로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τοῦτο δέ ἐστιν συμπαρακληθῆναι)
여러분 안에서 (ἐν ὑμῖν)
그것(영적인 선물)을 통하여 (διὰ τῆς)
상호간의 믿음으로 (ἐν ἀλλήλοις πίστεως)
여러분들과 나의 (ὑμῶν τε καὶ ἐμοῦ.)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 교회의 형성과정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들에게 애뜻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다. 아무리 바울이 복음에 헌신된 사도라 해도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까지 특별한 감정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헬라어 원문에서 11 절은 ‘에피포도’(ἐπιποθῶ)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 단어는 강한 열망, 간절한 목마름을 나타내는 동사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보기를 원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 그가 로마 교인들을 보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했던 영적 선물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성령의 은사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령한 체험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그 자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서 인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하심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을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영적 선물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은 인간에게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다. 그렇기에 이 영적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구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어떤 부드러운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다. 바로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한 성령의 외침이고 영적 선물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바로 영적 선물인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받게 될 영적 선물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사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개인적 ‘신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선물이다. 반면에 개인적 신념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다. ‘자기 눈에 물대기’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빗대는 말이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전인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서로 배경이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헬라인들은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 인간의 개인적 배경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견고함이란 인간의 생각을 내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 격려를 받는다고 했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는 사도나 그것을 받아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나 모두 함께 격려를 받게 된다는 말이다. 격려란 단순히 칭찬이나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변호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다. 그렇다. 타인들을 설득하고 훈련시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처지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면 둘 사이에 진정한 격려는 일어날 수 없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격려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다를 바 없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은 기쁨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자유, 안식, 평안에까지 이를 수는 없다. 당신은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격려하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영적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만들어 주나요?
당신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선물은 무엇인가?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1:13)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οὐ θέλω δὲ ὑμῶς ἀγνοεῖν,
형제들이여 (ἀδελφοί,
내가 몇번이고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계획했던 일을 (ὅτι πολλάκις προεθέμην ἐλθεῖν πρὸς ὑμῶς,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καὶ ἐκωλύθη ἄχρι τοῦ δεῦρο,
여러분 가운데에서 얼마의 열매를 맺기위해 (ἵνα τινὰ καρπὸν σχῶ καὶ ἐν ὑμῖν)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καθὼς καὶ ἐν τοῖς λοιποῖς ἔθνεσι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벌써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계획은 좌절됐다. 13절은 부정의 언어로 시작한다. 바울은 ‘나는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로 적지 않고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쓰고 있다. 이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반드시 알리고자 했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금까지 그 계획이 방해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을 막았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그의 대적자들이 그 길을 막았을 거라는 가정이다.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방문하는 곳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방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신이라는 걸 부정하는 이방인들이 그에게 대항해 일어났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훼방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외에 그의 로마행에 걸림돌이 된 것은 어쩌면 그의 사역이었을지도 모른다. 바울은 총 4회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 그 중 세 번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집중됐다. 알다시피 로마서는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되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데만 주력했던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데 더욱 힘썼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 성경 강론을 했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파견하고, 편지까지 써서 교회의 정착을 도왔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에는 그 교회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 위해 바울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 활동은 매우 특별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극심한 방해와 핍박이 뒤따랐다. 결국 그는 단 세 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베뢰아를 거쳐 급히 아테네까지 내려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도 궁금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살전 2:17).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받은 바울은 결국 자신은 가지 못하고 디모데 편으로 편지를 주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 그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목적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살전 3:2-3).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환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단순히 복음의 선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것까지였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번번히 좌절된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기 원했다. 그 열매는 이미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에게서 맺고 있는 열매다. 복음 전도사역에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 전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쳐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환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무한한 자유, 마음의 평강, 놀라운 은혜에 머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열매다.

교회는 단순히 숫자를 늘려 세력을 과시하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받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이 넘게 그 기적을 보았고 배부름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겨우 120명만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 중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복음의 열매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요,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갖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복음의 열매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했다(고전 2:2).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부다. 그렇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열매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눈을 고정하라.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보일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빛진 자입니다(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1:14~15)

헬라인에게 그리고 야만인에게 (“Ελλησίν τε καὶ βαρβάρους,
지혜로운 자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σοφοῖς τε καὶ ἀνοήτοις)
나는 빛진 자입니다 (ὀφειλέτης εἰμί)
그래서 나의 간절함으로 (οὕτως τὸ κατ’ ἐμὲ πρόθυμον)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καὶ ὑμῖν τοῖς ἐν Ῥώμῃ)
복음을 선포해야 할 (εὐαγγελίσασθαι).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나는 빛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빛진 자라고 선언했다. 그가 빛을 지고 있고, 그래서 그가 채무자라면, 도대체 채권자는 누구인가? 바울은 하나님이 채권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채권자라 선언하지도 않는다. 그는 놀랍게도 그와 일면식도 없는 헬라인들, 더 나아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야만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까지 모두 포함한 사람들을 채권자로 보았다. 놀랍지 않은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늘 빛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 죄인이란 행위로 죄를 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상의 법을 어겼든 어기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은 현재의 상태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피 흘려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빛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채권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빛을 갚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주 채권자인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자다. 우리가 영적 파산자가 된 이유는 우리가 진 빚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채무를 갚는 대신 이행해야 할 다른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타인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빛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상대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탕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빚을 갚는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 활동들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일 뿐이지 의무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라고 당부하지 않으셨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의 명령은 매우 간결하고 분명하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다. 제자를 만들되 땅끝까지 가면서 제자를 만들어야 하고,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만들어야 하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종교적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다. 게다가 각자의 유익을 추구하라 하지도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단 한 마디 명령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다. 남들처럼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 사역비를 받아 편히 살 수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반문했을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고전 9:4~6).

바울이라고 우리와 특별히 다를 게 있겠는가? 아마도 진 빛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빛을 진 자들이요, 지은 죄로 따진다면 해도 우리가 죄인 중의 괴수일 게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 권리를 누리지 않은 게 아니다. 그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받아들였다. 복음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그를 헤집어 놓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바로 자각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마암아 자기를 얹매는 모든 율법적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비로소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누렸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빛진 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빛을 갚는데 바울은 그의 일생을 걸었다.

우리는 어떤가?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바울에 비해 우리가 빛을 덜 진 자인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대신 아직도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빛진 자의 삶이란 자신이 채무자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당신은 채무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 채권자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빛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빛을 누구에게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1:16)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Οὐ γὰρ ἐπαισχύνομ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왜냐하면] 그것(복음)은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δύναμις γὰρ θεοῦ ἐστὶν εἰς σωτηρίαν)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Ἰουδαίῳ τε πρῶτον καὶ Ἕλληγι.)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 게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성도(믿기는 하지만 교회를 안나가는 성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심지어는 스스로 가나안 성도임을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독교의 현주소가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어떠한 경우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에파이스쿠노마이’ (ἐπαισχύνομαι)는 단순한 수치심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황은 여러 가지다. 대개의 경우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은밀한 비밀이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창세기 2 장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자 수치심이 들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도 수치심을 느낀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느낀 감정도 수치심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부끄러움을 뜻하는 헬리어 동사는 ‘아이스쿠노마이’ (αἰσχύνομαι)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부끄러움은 존재 자체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신의 죄가 타인에게 알려져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도 아니다. 그가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모두가 부정하며 비난하는 그 진리를 붙든다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심지어 그 진리를 타인에게 전한다고 비난받는 그런 것을 뜻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당한 중죄인으로 폄하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심지어 사회악이라고 여기고 손가락질해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오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 측 변호인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행 24:5).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전염병 취급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속

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다. 어찌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그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들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맹인 바디메오도,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도, 창녀로 일생을 보낸 마리아도 모두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이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으면 강풍도 잠잠하게 하고 고질병으로부터 해방되며, 말 안 듣던 사춘기 아이가 고분고분하게 되고 사업이 잘 풀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죄인 중의 괴수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이다. 한없이 더러운 존재가 가장 깨끗한 자가 되어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도 의롭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을 변화시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든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로 정의된다. 이 간단한 진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고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를 준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누더기같이 너털너털한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비난 할 수 있다. 조금만 실수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론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때론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 넣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1:17)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
믿음으로부터 (드러나와서) 믿음 안으로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기록한 바와 같이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산다”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ζήσεται.)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기독교 역사의 고비마다, 인간에 의해 진리가 매몰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물꼬를 튼 책이 바로 로마서다. 특히나 로마서 1장 17 절은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연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임을 입증하려 애썼던 한 청년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와 기어코 그를 무너뜨리려는 탐욕과 죄로 인해 무척이나 고민했던 사람이다. 카톨릭이 가르쳐 온 고해성사는 물론, 성당에서의 봉사, 수도원에서의 기도도 그에게서 이런 죄의식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 그의 양심은 계속해서 죄의식을 불어 넣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불의한 자였다. 그렇게 내면의 죄성과 씨름하고 있던 그를 구해내고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 절이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을 죄의식에 시달려 온 한 젊은 사제를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주었고, 꺾이기만 남은 기독교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 넣는 개혁의 불씨로 삼은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로 대변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아포칼립테타이’ (ἀποκαλύπτεται)!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보라. 인간이 상상조차 못하고 있던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본연의 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광경을 목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비밀의 말씀을 알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베일을 벗고 드러나는 그 실체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된다. 바울은 바로 그 실체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존재한다고 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체적 실체다. 그 실체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1-22).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피 흘려 손수 만드신 것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진짜가 아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의 도덕적 수준이 세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빌 3:6 참조). 하지만 그 의가 하나님의 의에는 턱없이 미치

치 못하는 것임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다. 게다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모든 의를 쓰레기 통에 던져버렸다(빌 3:8 참조).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며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만들어진 그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바울은 그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에서 들어간다고 했다. 하나님의 의의 원천도 믿음이고 종착역도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도 아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원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다. 이처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신념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다.

흔히들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현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원치않는 고난이 찾아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십자가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그만큼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믿음의 싸움을 수행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히 12:1-2 참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수많은 실수들로 만신창이가 되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믿음뿐이다. 복음을 믿는가? 그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말한다. “오직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인은 산다.” 당신은 무엇에 의존하여 당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당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기초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